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가족 구조 요인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동간의 관계: 성별 모형에 의한 접근*

문 성 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 요인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인터넷 이용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남녀고등학생 657명에게 MSPUIA의 원인척도와 이용행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가족 구성 내역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들이 인터넷 사용량 및 특정 인터넷 영역의 사용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언니 및 남동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이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되었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들과 가족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들 변인들과 인터넷 사용량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학생의 경우 동거 가족의 구성은 영역 특정적 접촉과 거의 관련이 없었지만, 낮은 가족 지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은 특정 인터넷 영역의 접속과 관련을 가졌다. 남학생의 경우는 가족 구성 변인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전체적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은 개인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가족 구성, 인터넷 이용 행동간의 관계가 서로 매우 상이하였으며, 가족 구성 내역과 관련되어있는 정도 및 주요한 보호/위험 요인도 달랐고 이러한 관계가 인터넷 이용 행동과 형성하고 있는 기제도 달랐다. 인터넷 이용 행동을 설명하는 성별 모형의 함의 및 이를 반영한 예방 계획의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족적 자원,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 인터넷 이용량, 인터넷 콘텐츠, 성차.

* 이 논문의 일부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2-B20169)

이 논문의 일부는 2009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문성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E-mail: drswmoon@hanmail.net

만3세에서 만5세 사이의 유아들 중 절반이상이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99%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노인들에 의한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복지저널, 2009) 현재의 인터넷 기반 세상에서 인터넷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도 당연하고 절대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망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미디어다음, 2009), 이제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저 일상에 불과할 뿐이며, 인터넷 접속 동기에 대한 설문에서 여학생의 80.9%, 남학생의 74.7%가 '심심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답한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문성원, 2009). 인터넷 초기의 이용자들은 복수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Turkle, 1995)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했었지만, 문성원(2009)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성취감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한 여학생도 역시 단 한명도 없었다. 방희정과 조아미(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그저 '재미있고', '심심해서' 인터넷 게임을 했다. 즉, 인터넷의 등장 초기에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어서 모두들 인터넷에 접속했지만, 무선인터넷 마저도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 속의 한 부분이 인터넷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누구든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면에는, 역기능적인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 또한 함께 존재한다.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쉽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자살사이트는 자살의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세계일보, 2009), 게임에 대한 중독이 형제에 대한 폭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김재엽 등, 2009), 원치 않는 아이들마저도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인터넷 상의 음란물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즉,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망 보급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면, 그런 만큼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위험한 수준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인터넷에 왜 접속하게 되는가 혹은 어떤 동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게되는가보다는 어떤 인터넷 영역에 접속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인터넷 이용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 실제로도,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일수록 그만큼 증상도 더 심했고,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 여부가 증상의 심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문성원, 2009).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나 특정 인터넷 영역의 접속 여부와 관련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해내는 일은 병리적인 인터넷 이용의 예방과 관련해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주로 많이 다루어진 변인들은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에만 한정된 경향이 있어서,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의 65.9%가 이들 변인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다(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이런 연구들의 경우 여러 심리적 변인들과 중독간의 단순한 관계만을 다루는데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변인들이 중독적인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중독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인지가 모호하고, 서로 개념적으로 상관계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의 척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단순히 특정의 심리적 측면들이 중독적 이용과 관련된다는 것만을 입증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입과 관련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에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이러한 연구 경향과 달리, 인터넷 이용을 다루는 최근의 연구들은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관련 변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Jackson 등(2003)은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는 성격특성이나 인지적 양식보다는 인구학적 특성이 더욱 강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문성원(2009)의 연구를 보면 여고생과 남고생은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량에서도 차이가 났고 접속 영역도 달랐으며, 접속양이 증상과 관련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났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평균 일일 인터넷 사용량이 더 많았으며, 여학생 중에는 메신저만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반면, 남학생 중에는 게임만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용 영역에 대한 성차는 Xiumin(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채팅을 더 많이 했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게임을 더 많이 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호 경향성은 자살이나 성폭행 등 여학생들 자신에 대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채팅 도중 받은 성적인 모욕 때문에 여중생이 자살을 했으며(중앙일보, 2002), 인터넷 상에서 받은 메시지 때문에 13세 소녀가 자살을 했다(New York

Times, 2008).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유인을 당해 십대 여자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연합뉴스, 2009)은 이제는 드문 일도 아니다. 반면, 채팅으로 인해 남자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폭력을 겪은 경우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Iftene 등(2004)은 과도한 인터넷 이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성별에 따라 설명 기제가 다르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Iftene 등(2004)에 따르면, 남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동은 중독적 모델로 더 설명이 잘 되었던 반면, 여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안 회피 기질로 더 설명이 잘 되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 집단과 중독 집단에 속하는 빈도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더 많다(서승연, 이영호, 2007). 남성은 여성보다 인터넷 및 게임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높고 온라인 게임 중독 성향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쉽게 빠져들며(진창현 과 정의철, 2009), 음란물 및 음란 채팅에 중독된 정도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의 10배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다(이해경, 2007). 또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역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랐다. Stroope(2008)에 따르면, 부모들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찰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연구들은 성별이 인터넷 이용 행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함을 보인 바 있다(김은정, 2005; 이성식, 전신현, 2006; 조영란, 이화자, 2004; Jackson, 2003). 성별은 인터넷 이용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이어서, 남자비행 청소년들은 우울 및 불안의 수준에 따라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충동, 과다행동 및 비행의 정도가 달라졌지만 여자비행청소년

들은 우울 및 불안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신현숙 등, 2004). 따라서,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인터넷 중독 모형(박중규 등, 2008)은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인터넷 이용 시간이 짧고,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안 회피 기질이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채팅이나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러한 이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되는 일이 많다.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고, 인터넷에 중독이 된 까닭에 인터넷 과다 사용의 문제가 지속이 되며, 게임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인구학적 특성중 성별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변인들의 인터넷 중독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김정환, 2004; 신영주, 최정윤; 2003; 조영란, 이화자, 2004). 신수정과 장윤옥(2007)에 따르면, 극단 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경험 동기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했다. 게임중독과 관련해서도, 방희정과 조아미(2003)은 성장기 청소년의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가족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개인 특성을 넘어서서 가족의 기능과 연계시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고, 고선주 등(2004)도 부모 갈등은 자녀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 모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부간 불화와 이혼은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있는 당사자들의 사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며 인터넷 요인과 가족 요인을 함께 다루었다. 즉, 인터넷의 병

리적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성격특성에 집중하던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나서,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족 관련 변인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관점을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증가율이 세계1위에 달하고 있고(정민자, 2003), 평균 출산율은 OECD국가의 평균 출산율보다도 낮으며(이경숙등, 2009), 다문화 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변인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 행태를 조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김현수(2005)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들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외동아들, 혹은 남매 중 아들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실제로, 정보문화진흥원(2009)에서 정의하는 인터넷 중독 취약 계층은 조손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중증 장애청소년 등 가족 구성원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조손가정 아동이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 아동보다 건강상태나 건강행위 정도가 낮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지만(고선주, 2004), 실제로는 그 실태조차도 파악된 바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한국기자협회, 2006). 취약 계층에 속해있는 자녀의 경우 인터넷 중독에 대한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취약 계층에 속해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인지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시행된 바는 없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과정으로 인해 정말로 시급히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군이 개입에서 고려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적 변인과 인터넷 이용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인터넷 중독 취약 계층으로 막연하게 간주하기 보다는 구체

적으로 그러한 가족 구성 내용이 인터넷 이용과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응집성에 대한 지각과 더불어 실제 가족 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인터넷 이용 행동과 관련된 기제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가족적 자원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인터넷 이용 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지각된 가족응집성 이외에도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조손가정에 속해있는지, 외동아이인지, 부모의 결혼 상태는 어떠한지,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의 제지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모두 이용하여 가족적 자원을 다루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동은 성별에 따라 설명 기제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Iftene 등, 2004), 문성원(2009)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 형태와 증상이 맺고 있는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랐던 만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 및 가족적 자원이 인터넷 이용 행동과 맺고 있는 관련성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을 성별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였다. 최근의 인터넷 이용 관련 연구들이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한 인구학적 변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만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가족 구조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구성적 특성에 따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강점이나 취약성이 인터넷 이용과 각기 다르게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성원(2009)의 연구에서 접속 시간과 성별 모두 증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병리적 증상의 정

도가 심했고, 접속 시간이 증가할수록 병리적 증상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접속 영역까지 포함해서 인터넷 이용 형태와 증상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접속 시간과 음란물 접속, 채팅 접속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정보검색과 접속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던 만큼,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사용량과 접속 영역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 행동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이 인터넷 사용시간과 맺고 있는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주요 가족 구성과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 조손가정 및 외동아이 여부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 부모의 결혼 상태와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와,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유의한 가족 구성 변인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2. 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이 특정 인터넷 이용 영역과 맺고 있는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주요 가족 구성과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 여부 그리고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 여부간의 관

계를 각각 분석한 후, 가족 구성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 여부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얻어졌다.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for Adolescent; MSPUIA) 전체가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개발되면서, 1부 증상척도(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 및 2부 원인척도(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5), 3부 이용행태척도(문성원, 2009)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2부와 3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가 사용되었다.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국의 실험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설문지의 업로드 사실을 알리면,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안내를 들은 후, 각 학교의 재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설문에 응하였다. 학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응답자 학년 제한을 두었으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각 학교의 2학년 학생들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 설문의 실시는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넷 습관 개선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총 819명이었으며 이들 중 중학생은 162명이었고 고등학생은 657명이었다. 중학생 응답자수와 고등학생 응답자수간의 차이($\chi^2=299.176, p<.001$)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얻어진 자료중 고등학생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등학생 응답자들은 서울에서 226명(23.1%), 대구 152명(23.1%), 충북 132명(20.1%), 경기 57명(8.7%), 강원 57명(8.7%), 경북 33명(5.0%)이 참여하였으며 성별 문항에 표시를 했거나 성별이 확인된 응답자중 남학생은 345명(52.5%), 여학생은 275명(41.9%)였다.

연구도구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 2부 원인척도(MSPIUA-C)

MSPIUA-C(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5)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이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총 6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효능감, 충동성, 가족 지지, 교사 지지, 문제 해결 능력, 친구 지지, 우울, 사회적 유능감, 분노 조절 곤란 등의 9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위 요인 분석 결과 9개의 요인은 다시 자기효능감, 가족 지지, 교사 지지, 문제 해결 능력, 친구 지지, 사회적 유능감과 충동성, 우울, 분노조절의 2 요인으로 묶이면서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나뉘었다. 평정 방식은 MSPUIA-1부와 동일하며, 각 요인의 점수는 높을수록 취약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가령, 가족 지지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가족 지지 정도가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MSPUIA 2부 전체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고, 각 소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기효능감의 경우 $a = .73$, 충동성 $a = .70$, 가족 지지 $a = .88$, 교사 지지 $a = .83$, 문제 해결 능력 $a = .71$, 친구 지지 $a = .84$, 우울 $a = .80$, 사회적 유능감 $a = .69$, 분노 조절 곤란 $a = .67$ 이었다.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 3부 이용 행태 질문지(MSPIUA-U)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 3부(문성원, 2009)는 인터넷 접속시의 실제 이용 행태(Usage Pattern:U)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항들과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져있다. 이용 행태와 관련해서는, 접속 시간, 접속 빈도, 접속 시간대, 인터넷 사용 역사, 인터넷을 처음 접한 시기, 가장 오랫동안 접속한 기록, 주로 이용 영역, 동반자 여부, 접속 이유, 주변인들의 제지 등에 관한 문항들이 있고, 인구학적 특성에 관해서는 동거가족의 구성, 부모의 결혼 상태에 관해서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문항들이 있다. 이용행태와 관련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학기중 사용과 방학 동안의 사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두 시기를 나누어서 질문하고 있다. 학기 중 및 방학기간의 일일 접속 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4시간 이내’, ‘5시간 이내’, ‘6시간 이내’, ‘7시간 이내’, ‘8시간 이내’, ‘8시간 이상’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답지중 하나의 답안을 고르도록 되어있으나, 접속 시간대를 묻는 질문과 사용 영역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답지 선택이 가능하였으며, 사용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중이 큰 3개의 답을 순서대로 고르도록 되어 있다.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문항은 주관식

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 방법

먼저 인터넷 이용 청소년들의 가족적 자원과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가족 구조 변인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 각각은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별도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은 유의한 가족 구조 변인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 그리고 가족 구조 변인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의 상호작용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이용량에 관한 부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으로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족 구조 변인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구조 변인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특정 인터넷 영역의 사용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backward(wald)방법으로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가족 구조 변인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고 특정 인터넷 영역의 사용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결 과

동거가족의 구성적 특징과 관련된 인구학적 자료

성별의 구분이 가능한 620명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동거 가족의 구성적 특성은 표 1과 별도로 분리해서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같다. 그중에서도 외동 및 조손가정 여부는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은 여학생 응답자 중

표 1. 동거가족의 구성과 관련된 인구학적 분포

	여학생(%) 동거/비동거	남학생(%) 동거/비동거	전체(%) 동거/비동거
외할머니	4/258 (1.5/98.5)	5/340 (1.4/98.6)	9/598 (1.5/98.5)
외할아버지	1/261 (.4/99.6)	3/342 (.9/99.1)	4/603 (.7/99.3)
친할머니	32/230 (12.2/87.8)	41/304 (11.9/88.1)	73/534 (12.0/88.0)
친할아버지	14/248 (5.3/94.7)	13/332 (3.8/96.2)	27/580 (4.4/95.6)
어머니	233/29 (88.9/11.1)	310/35 (89.9/10.1)	543/64 (89.5/10.5)
아버지	225/37 (85.9/14.1)	292/53 (84.6/15.4)	517/90 (85.2/14.8)
새어머니	5/257 (1.9/98.1)	2/343 (.6/99.4)	7/600 (1.2/98.8)
새아버지	4/258 (1.5/98.5)	9/336 (2.6/97.4)	13/594 (2.1/97.9)
언니/누나	63/199 (24.0/76.0)	91/254 (26.4/73.6)	154/453 (25.4/74.6)
오빠/형	49/213 (18.7/81.3)	68/277 (19.7/80.3)	117/490 (19.3/80.7)
여동생	58/204 (22.1/77.9)	72/273 (20.9/79.1)	130/477 (21.4/78.6)
남동생	128/134 (48.9/51.1)	72/273 (20.9/79.1)	200/407 (32.9/67.1)
전체	262 (100.0)	345 (100.0)	607 (100.)

표 2. 외동아이 여부와 관련된 인구학적 분포

	여학생 (%)	남학생 (%)	전체 (%)
외동아이	29 (11.07)	64 (18.55)	93 (15.32)
외동아이가님	233 (88.93)	281 (81.45)	514 (84.68)
전체	262 (100.00)	345 (100.00)	607 (100.00)

표 3. 조손가정 여부와 관련된 인구학적 분포

	여학생 (%)	남학생 (%)	전체 (%)
조손가정	6 (2.32)	9 (2.64)	15 (2.50)
조손가정아님	253 (97.68)	332 (97.36)	585 (97.50)
전체	259 (100.00)	341 (100.00)	600 (100.00)

표 4. 부모의 결혼 상태 분포

부모의 결혼상태	여학생 (%)	남학생 (%)	전체 (%)
별거나 이혼 없음	215 (82.38)	282 (81.98)	497 (81.15)
별거	11 (4.21)	20 (5.81)	31 (5.12)
이혼	24 (9.20)	28 (8.14)	52 (8.60)
재혼	11 (4.21)	14 (4.07)	25 (4.13)
Total	261 (100.00)	344 (100.00)	605 (100.00)

에서는 11.07%, 남학생 응답자 중에서는 18.55%였으며, 부모가 아닌 조부모와 사는 청소년은 여학생 응답자중 2.32%, 남학생 응답자중 2.64%였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학생의 82.38% 그리고 남학생의 81.98%가 이혼이나 별거 혹은 재혼 등의 경험이 없는 부모와 현재 살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가족 구조 변인 및 개인 심리적 요인과 인터넷 이용량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가족 구조 변인과 인터넷 이용량과의 관계

동거 가족의 구성과 인터넷 사용량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 접속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동거 가족 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의 중다 회귀 분석을 성별에 따라 실시한 결과, 표 5에 나타나있듯이 일일 인터넷 사용량을 종속 변인으로 했을 때 여학생의 경우 언니와 남동생의 존재는 학기 중과 방학 기간 모두에 대해 일일 인터넷 사용량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학생에 대해 언니와 남동생의 유무에 따른 일일 인터넷 이용량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언니

가 있는 여학생이 언니가 없는 여학생보다 학기중 일일 인터넷 이용량($F=5.98, p<.05$)과 방학중 일일 인터넷 이용량($F=7.56, p<.001$)이 유의미하게 더 작았고, 남동생이 있는 여학생은 남동생이 없는 여학생에 비해 방학 중 일일 인터넷 이용량이 유의미하게 더 작았다($F=4.75, p<.05$). 남학생의 경우는 학기 중에는 동거가족의 구성과 일일 인터넷 사용량이 관계가 없었고, 방학기간동안에는 새어머니의 존재가 일일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남학생의 수가 전체 남학생 응답자의 1%에도 못 미쳤고 새어머니와 동거하는 남학생의 응답과 그렇지 않은 남학생 응답은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았으므로($F(1,338)=5.026, p<.05$) 새어머니와의 동거 여부와 일일 인터넷 사용량과의 관계를 말하기는 어렵다.

조손가정 여부 및 외동아이 여부와 관련하여, 여학생의 경우 조손가정에 속했는지의 여부가 학기중 일일 사용량과는 무관했으나 방학중에는 조손가정에 속한 여학생의 사용량이 더 많았다($F=3.11, p<.05$). 여학생의 외동아이 여부는 인터넷 사용량 전체와 무관했고, 남학생의 경우 조손가정 여부 및 외동아이 여부는 인터넷 사용량 전체와 모두 무관했다. 그러나 조손 가정에 속한 여학생의 방학중 일일 인터넷

표 5. 일일 인터넷 사용량과 관련된 동거 가족 구성 특성의 중다회귀분석

	여학생 (N=257)								남학생 (N=340)			
	학기중(R ² =.08)				방학기간(R ² =.11)				방학기간(R ² =.04)			
	B	SE B	β	t	B	SE B	β	t	B	SE B	β	t
외할머니	-0.74	0.75	-.06	-1.00	-1.33	1.10	-.07	-1.21	1.63	1.34	0.08	1.22
외할아버지	0.21	1.52	.01	.14	-3.55	2.25	-.10	-1.58	0.55	1.80	0.02	0.31
친할머니	-0.64	0.33	-.14	-1.96	-0.72	0.48	-.11	-1.49	0.38	0.47	0.05	0.80
친할아버지	0.49	0.46	.07	1.05	-0.27	0.69	-.03	-.40	-0.09	0.78	-0.01	-0.11
어머니	0.41	0.35	.09	1.18	0.98	0.52	.14	1.90	0.13	0.52	0.02	0.25
아버지	-0.40	0.29	-.09	-1.40	-0.29	0.42	-.05	-.69	-0.57	0.44	-0.08	-1.30
새어머니	1.04	0.75	.10	1.38	1.53	1.11	.10	1.38	4.16	1.90	0.13	2.19*
새아버지	-1.48	0.81	-.12	-1.84	-2.17	1.19	-.12	-1.82	-0.26	0.98	-0.02	-0.27
언니/누나	-0.58	0.23	-.17	-2.57*	-0.96	0.34	-.19	-2.87*	-0.10	0.38	-0.02	-0.26
오빠/형	-0.36	0.29	-.10	-1.25	-0.31	0.43	-.05	-.72	-0.13	0.42	-0.02	-0.31
여동생	-0.08	0.24	-.02	-.32	-0.18	0.35	-.03	-.51	-0.41	0.40	-0.07	-1.02
남동생	-0.48	0.22	-.16	-2.18*	-0.91	0.33	-.20	-2.81*	0.18	0.40	0.03	0.45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넷 사용량과 그렇지 않은 여학생의 방학중 일일 인터넷 사용량은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았 다($F(1,253)=4.778, p < .05$).

부모의 결혼 상태와 인터넷 사용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의 결혼 상태를 ‘별거나 이혼경험없음’, ‘별거’, ‘이혼’, ‘재혼’으로 나누어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일일 인터넷 접속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의 결혼 상태는 종속 변인과 무관하였다.

부모의 제지 빈도와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 인터넷 접속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제지 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일 인터넷 접속량을 종속변인

으로 했을 때 여학생의 경우 학기중 일일 인터넷 접속량($F=130.54, p < .01$)과 방학기간의 인터넷 접속량($F=238.25, p < .001$)은 부모의 제지가 ‘하지 않는다’, ‘가끔씩’, ‘볼 때마다 한번씩’, ‘그만둘 때까지 계속’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달랐다. 표 6에 나타난 일일 인터넷 이용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Sheffe의 사후 검증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가끔씩’인 경우의 일일 인터넷 접속량은 ‘하지 않는다’인 경우의 인터넷 접속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 학기중 일일 인터넷 접속량은 부모의 제지정도와 상관이 없었으며 방학 기간동안은 부모의 제지가 ‘가끔씩’인 경우의 인터넷 접속량은 ‘하지않는다’의 인터넷 접속

표 6. 부모의 제지빈도와 일일 인터넷 이용량

	여학생			남학생	
	학기중	방학기간	N	방학기간	N
부모제지빈도	M(SD)	M(SD)		M(SD)	N
하지않는다	1.68(1.33)	3.22(1.88)	58	4.52(2.81)	72
가끔씩	2.47(1.45)	4.51(2.23)	163	5.36(2.43)	228
볼 때마다	2.33(1.56)	4.53(2.24)	32	5.86(2.68)	29
그만둘 때까지	2.75(2.87)	6.25(3.20)	4	4.82(2.14)	11
합계	2.28(1.49)	4.25(2.24)	257	5.21(2.55)	340

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많았다 (F=2.78, p<.05).

성별에 따른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량과의 관계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들과 인터넷 사용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MSPUIA 2부 요인들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일일 인터넷

접속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일 접속량의 경우, 여학생은 학기 중에는 친구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유능감 정도가 낮을수록, 분노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할수록 장시간의 일일 인터넷 이용과 관련이 되어있었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가족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친구

표 7. 일일 인터넷 접속량에 대한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여학생 (N=257)								남학생 (N=340)							
	학기중(r²=.12)				방학기간(r²=.08)				학기중(r²=.06)				방학기간(r²=.07)			
	B	SE B	β	t	B	SE B	β	t	B	SE B	β	t	B	SE B	β	t
자기효능감	-.06	.30	-.02	-.19	-.14	.46	-.02	-.29	.23	.39	.04	.59	.37	.47	.05	.78
충동성	-.03	.28	-.01	-.09	.11	.43	.02	.25	.05	.34	.01	.15	.21	.40	.03	.51
가족지지	.33	.25	.09	1.32	.88	.39	.16	2.28*	.22	.30	.04	.71	.36	.36	.06	.98
교사지지	-.33	.21	-.10	-1.57	-.20	.32	-.04	-.62	.25	.24	.06	1.01	.48	.29	.09	1.63
친구지지	.60	.21	.19	2.87**	.81	.32	.17	2.54*	.15	.27	.03	.56	.14	.32	.03	.45
문제해결	-.55	.26	-.15	-2.13*	-.41	.39	-.07	-1.05	-.05	.31	-.01	-.17	-.60	.37	-.10	-1.61
우울	-.02	.28	-.01	-.07	-.12	.42	-.02	-.28	1.22	.36	.24	3.37***	1.48	.44	.24	3.40***
사회적유능감	.68	.22	.21	3.06**	.40	.34	.08	1.18	-.61	.27	-.14	-2.25*	-.39	.32	-.08	-1.21
분노조절	.58	.27	.15	2.16*	.53	.41	.09	1.29	-.80	.33	-.15	-2.38*	-.84	.40	-.13	-2.10*

주. *p<.10, *p<.05, **p<.01, ***p<.001

지지가 낮을수록 장시간의 일일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분노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장시간의 일일 인터넷 이용과 관련이 되어있었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장시간의 일일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있다.

성별에 따른 가족 구조 변인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량과의 관계

남학생의 경우 동거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시간 변인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여학생에 한하여 유의미한 동거가족 구조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들이 인터넷 이용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족의 구성원중 언니와 남동생이 있는 경우 적은 양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고,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들 또한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되어있었으므로, 언니나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들과 인터넷 이용의 관계에서 중재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언니나 남동생과의 동거 여부,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들, 인터넷 이용량의 관계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에게 언니나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 구성적 특성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배제하고, 언니와 남동생의 동거 여부와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들 그리고 인터넷 사용량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친구 지지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낮을수록, 분노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언니가 없을수록, 학기 중 일일 인터넷 이용량이 많았고, 친구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언니가 없을수록, 남동생이 없을수록, 방학기간 동안의 일일 인터넷 이용량이 많았다.

성별에 따른 가족 구조 변인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 영역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가족 구조 변인과 인터넷 이용 영역과의 관계

성별에 따라 동거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영역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성별에 대해 동거가족 구성의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각의 인터넷 이용 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동거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영역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외할머니와의 동거 여부와 집안일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이용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Wald \chi^2 = 5.18, p < .05$). 한 집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여학생들은 집안일을 목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는, 새 아버지, 외할아버지, 형과의 동거 여부가 메일 사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할아버지, 형, 여동생과의 동거 여부가 음란물 사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남동생과의 동거가 커뮤니티 활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형과의 동거가 음악 및 영화 다운로드 활동과 유의미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표 8.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에 대한 남학생의 동거가족 특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메일			음란물			커뮤니티			음악 및 영화		
	B(S.E.)	Wald	Exp(B)	B(S.E.)	Wald	Exp(B)	B(S.E.)	Wald	Exp(B)	B(S.E.)	Wald	Exp(B)
외할머니	-1.07(1.21)	.78	.34	-1.43(1.18)	1.49	.24	-1.70(1.25)	1.87	.18	-1.44(1.29)	1.25	.24
외할아버지	1.73(1.64)	1.12*	5.64	-1.16(1.78)	.01	.85	21.95(22517.16)	.00	3418796128.67	.71(1.58)	.20	2.04
할머니	.49(.41)	1.44	1.63	1.13(.81)	1.94	3.09	-.42(.40)	1.14	.66	-.13(.38)	.12	.88
할아버지	-.62(.63)	.97	.54	-1.69 (.85)	3.93*	.18	.73(.72)	1.03	2.08	.56(.65)	.75	1.75
어머니	.32(.42)	.57	1.38	-.22(.60)	.13	.81	.45(.43)	1.09	1.56	-.41(.42)	.98	.66
아버지	.37(.35)	1.08	1.44	.06(.52)	.01	1.06	.08(.37)	.05	1.08	.58(.36)	2.62	1.79
새어머니	-.49(1.50)	.11	.61	-3.08(1.62)	3.62	.05	-.14(1.60)	.01	.87	-21.59(27518.13)	.00	.00
새아버지	-2.25(1.13)	3.97*	.11	-.91(0.96)	.89	.40	-.41(.75)	.29	.67	-.32(.79)	.16	.73
누나	-.07(.30)	.05	.93	.69(0.43)	2.56	1.99	.05(.33)	.02	1.05	.42(.30)	1.96	1.52
형	.77(.34)	5.16*	2.16	1.34(.57)	5.63*	3.82	.27(0.37)	.52	1.31	.75(.33)	5.03*	2.11
여동생	.60(.33)	3.38	1.82	1.17(.50)	5.34*	3.21	-.33(.34)	.95	.72	.10(.32)	.10	1.11
남동생	.39(.33)	1.46	1.48	.91(.48)	3.61	2.48	-.93(.33)	7.83**	.39	-.49(.33)	2.11	.62
constant	.59(2.54)	.05	1.80	.89(2.81)	.10	2.43	-20.15(22517.16)	.00	.00	21.73(27518.13)	.00	2732873745.6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 영역과의 관계

성별에 따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 영역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알

아보기 위해서, 성별을 구분해서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이용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여학생의 경우, 낮

표 9.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에 대한 여학생의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채팅				커뮤니티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자기효능감	-.34	.62	.29	.72	-1.22	.458	7.10**	.30
충동성	-.76	.57	1.78	.47	-.48	.41	1.39	.62
가족지지	1.42	.51	7.76**	4.12	1.40	.40	12.43***	4.05
교사지지	-.11	.42	.07	.90	.27	.30	.76	1.30
친구지지	.01	.42	.00	1.01	-.38	.31	1.53	.69
문제해결	-.42	.49	.74	.66	-.50	.37	1.84	.61
우울	.82	.56	2.17	2.28	.19	.40	.22	1.21
사회적유능감	.18	.44	.17	1.20	.46	.32	2.08	1.59
분노조절	.31	.56	.33	1.38	.03	.40	.01	1.03
Constant	-3.83	1.61	5.67	.02	.49	1.09	.21	1.64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은 가족지지는 채팅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높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가족지지가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이 있었다(표 9). 남학생의 경우,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메신

저 사용과 관련되어있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채팅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

표 10.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에 대한 남학생의 개인심리적 변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채팅			남-메신저			남-게임		
	B(S.E.)	Wald	Exp(B)	B(S.E.)	Wald	Exp(B)	B(S.E.)	Wald	Exp(B)
자기효능감	-1.18(.55)	4.55*	.31	-.76(.39)	3.67	.47	.50(.49)	1.03	1.65
충동성	-.33(.46)	.53	.72	-.23(.34)	.49	.79	.28(.40)	.48	1.32
가족지지	.15(.40)	.13	1.16	.67(.31)	4.60*	1.95	.21(.37)	.31	1.23
교사지지	-.29(.34)	.74	.75	.01(.24)	.00	1.01	.17(.30)	.35	1.19
친구지지	.83(.37)	4.96*	2.29	-.11(.27)	.17	.90	.47(.34)	1.97	1.60
문제해결	.02(.45)	.00	1.02	-.46(.31)	2.28	.63	-1.40(.38)	13.42***	.25
우울	1.36(.51)	7.08**	3.90	.60(.36)	2.77	1.82	.25(.44)	.33	1.29
사회적유능감	-.90(.38)	5.57*	.41	-.35(.27)	1.60	.71	.21(.34)	.36	1.23
분노조절	-.04(.47)	.01	.96	.09(.33)	.07	1.09	-.12(.41)	.09	.89
Constant	-1.07(1.34)	.64	.34	1.10(.98)	1.25	2.99	-1.13(1.16)	.01	.88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에 대한 남학생의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음란물			남-커뮤니티			음악		
	B(S.E.)	Wald	Exp(B)	B(S.E.)	Wald	Exp(B)	B(S.E.)	Wald	Exp(B)
자기효능감	-.29(.59)	.24	.75	-.97(.42)	5.37*	.38	-.91(.39)	5.40*	.40
충동성	.34(.47)	.53	1.41	.19(.35)	.28	1.20	-.20(.33)	.36	.82
가족지지	.84(.42)	4.12*	2.32	-.31(.32)	.96	.73	-.15(.30)	.23	.87
교사지지	-.08(.35)	.05	.93	-.06(.25)	.06	.94	-.07(.24)	.09	.93
친구지지	-.55(.40)	1.91	.58	-.13(.28)	.20	.88	.26(.27)	.99	1.30
문제해결	.11(.45)	.06	1.12	.07(.33)	.04	1.07	-.57(.30)	3.54	.57
우울	-.12(.53)	.05	.89	.55(.38)	2.07	1.73	.82(.36)	5.16*	2.28
사회적유능감	-.54(.39)	1.94	.58	-.12(.28)	.19	.89	-.14(.27)	.25	.87
분노조절	.95(.50)	3.67	2.59	-.03(.35)	.01	.97	-.21(.33)	.42	.81
Constant	-3.44(1.47)	5.49*	.03	.53(1.02)	.27	1.70	2.11(.98)	4.60*	8.2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수록 게임 사용과 관련이 되어있었고,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음란물 이용과 관련되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커뮤니티 이용과 관련되었다(표 10, 표 11).

성별에 따른 가족 구조 변인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 영역과의 관계
 성별에 따라 동거가족의 구성적 특성 및 심

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 영역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거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터넷 이용 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표 13). 먼저, 여학생의 경우, 메일 사용 여부 그리고 음악 및 영화 다운로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동거가

표 12.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에 대한 동거가족의 구성적 특성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여학생)

	B	S.E.	Wald	Sig.	Exp(B)
메일					
상수항	.428	.127	11.415	.001	1.534
메신저					
가족지지	.929	.354	6.877	.009	2.533
문제해결	-.807	.342	5.571	.018	.446
상수항	-.060	.659	.008	.928	.942
채팅					
가족지지	1.345	.445	9.160	.002	3.840
상수항	-4.241	.876	23.457	.000	.014
게임					
가족지지	.666	.317	4.400	.036	1.946
상수항	-1.306	.582	5.036	.025	.271
검색					
친구지지	-.593	.278	4.543	.033	.553
상수항	.470	.510	.851	.356	1.600
음란물					
사회적유능감	2.819	1.359	4.305	.038	16.766
상수항	-10.412	3.314	9.870	.002	.000
커뮤니티					
자기효능감	-1.146	.384	8.914	.003	.318
가족지지	1.205	.368	10.719	.001	3.336
상수항	-.043	.724	.004	.952	.958
음악					
상수항	.710	.132	29.104	.000	2.035
집안일					
자기효능감	-4.028	2.056	3.836	.050	.018
우울	6.296	2.334	7.277	.007	542.304
상수항	-11.774	5.413	4.731	.030	.000

표 13.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에 대한 동거가족 특성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남학생)

	B	S.E.	Wald	Sig.	Exp(B)
메일					
어머니	4.262	1.820	5.486	.019	70.980
새아버지	-2.337	1.130	4.281	.039	.097
형	.687	.300	5.257	.022	1.987
문제해결	-.773	.280	7.603	.006	.462
친구지지 * 여동생	.299	.142	4.473	.034	1.349
사회적유능감 * 어머니	-2.027	.925	4.800	.028	.132
상수항	2.255	1.204	3.510	.061	9.537
메신저					
남동생	1.656	.732	5.112	.024	5.237
여동생	-3.826	1.292	8.776	.003	.022
가족지지	.635	.297	4.576	.032	1.888
친구지지	-1.951	.669	8.503	.004	.142
자기효능감 * 남동생	-1.143	.384	8.835	.003	.319
친구지지 * 여동생	2.113	.716	8.719	.003	8.275
상수항	2.836	1.321	4.608	.032	17.050
채팅					
자기효능감	-1.213	.531	5.218	.022	.297
친구지지	.782	.363	4.633	.031	2.185
우울	1.234	.452	7.434	.006	3.434
사회적유능감	-.848	.362	5.483	.019	.428
상수항	-1.863	.936	3.960	.047	.155
게임					
친구지지	.670	.311	4.628	.031	1.954
문제해결	-.972	.314	9.553	.002	.378
상수항	1.651	.604	7.476	.006	5.210
검색					
어머니(1)	3.634	1.561	5.420	.020	37.882
친구지지	-.506	.246	4.223	.040	.603
자기효능감 * 남동생	-.473	.148	10.184	.001	.623
사회적유능감 * 어머니	-1.672	.819	4.171	.041	.188
상수항	.983	.492	3.998	.046	2.673
음란물					
어머니	10.710	4.410	5.898	.015	44817.157
새어머니	-3.936	1.843	4.559	.033	.020
누나	2.837	1.258	5.085	.024	17.072
여동생	7.311	2.220	10.846	.001	1497.325
가족지지	1.088	.471	5.347	.021	2.969
문제해결	3.259	1.159	7.912	.005	26.020
분노조절	1.379	.512	7.249	.007	3.971
충동성 * 어머니	-4.811	2.121	5.142	.023	.008
문제해결 * 여동생	-4.103	1.251	10.755	.001	.017
충동성 * 형	.742	.237	9.835	.002	2.100
우울 * 누나	-1.380	.642	4.620	.032	.251
상수항	-10.330	3.003	11.835	.001	.000
커뮤니티					
남동생(1)	1.427	.692	4.252	.039	4.164
자기효능감 * 남동생	-1.408	.391	12.931	.000	.245
상수항	-.056	.236	.056	.814	.946
음악					
남동생	-.897	.289	9.600	.002	.408
자기효능감	-.945	.303	9.741	.002	.389
상수항	2.532	.613	17.063	.000	12.584
집안일					
가족지지 * 새아버지	-.893	.430	4.316	.038	.409
상수항	-1.512	.696	4.722	.030	.220

족의 구성적 특성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채팅과 게임의 이용은 낮은 가족지지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메신저 사용은 낮은 가족지지,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되어 있었고, 커뮤니티 이용은 높은 자기효능감, 낮은 가족지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정보 검색의 이용은 높은 친구 지지와 관련되어 있었고, 음란물의 이용은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되어 있었고, 집안일목적의 인터넷 이용은 높은 자기효능감, 높은 우울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남학생은 메일 사용은 어머니의 부재, 새아버지의 존재, 형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친구 지지 정도가 메일 사용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여동생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졌고, 사회적 유능감이 메일 사용으로 이어지는 정도도 어머니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메신저 사용은, 남동생의 존재, 여동생의 부재, 높은 친구지지 정도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 수준이 메신저 사용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남동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고, 친구 지지 수준이 메신저 사용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여동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채팅의 사용은 높은 자기효능감, 낮은 친구지지, 높은 우울, 높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게임의 이용은 낮은 친구지지, 높은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정보검색의 이용은 높은 친구 지지 수준과 관련되어 있었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정보검색의 이용과 관련이 되는 정도는 남동생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졌고, 사회적 유능감이 정보검색의 이용과 관련되는 정도는 어머니의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커뮤니티 이용은 남동생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었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커뮤니티 이용과 관련이 되는 정도는 남동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

다. 음악 및 영화 다운로드 이용은 남동생의 부재, 높은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집안일 목적의 인터넷 이용과 가족지지와 관련되는 정도는 새아버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남학생의 음란물 사용은 많은 변수들과 관련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존재, 새어머니의 부재, 누나의 존재, 여동생의 존재, 낮은 가족지지, 낮은 문제해결 능력, 낮은 분노조절 능력이 음란물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고, 충동성이 음란물 이용과 관련되는 정도는 어머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고, 문제해결 능력이 음란물 이용과 관련되는 정도는 여동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으며, 충동성 수준이 음란물 이용과 관련이 되는 정도는 형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고, 우울 수준이 음란물 이용과 관련이 되는 정도는 누나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논 의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더불어 가족 변인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가족 변인이 인터넷 이용 행태와 맺고 있는 관계는 성별에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구성과 인터넷 이용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남학생은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가 하는 점과 일일 인터넷 이용량이 무관하였으나, 여학생은 언니나 남동생이 있을 수록 일일 인터넷 이용량이 적었고, 가족 구

성과 특정 인터넷 영역의 접속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여학생은 전반적으로 동거 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특정 인터넷 영역의 접속이 무관하였지만 남학생은 동거 가족의 구성적 특성과 특정 인터넷 이용 영역간의 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산발적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여학생의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 특정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가 사용량 감소와 관련이 되지만, 남학생이 접속하는 인터넷 영역의 경우는 특정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가 해당 영역의 이용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대화 창구나 또래 가족 구성원으로 대체될 수 있는 활동인 반면, 남학생들에게 인터넷은 분명한 역할을 갖고 있는 하나의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또래 가족 구성원으로 대체 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이 또래 가족 구성원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은 또래 가족 구성원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이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십대 여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지원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려는 여학생의 심리적 기제 자체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십대 여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상대 남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다가 성폭력 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노컷뉴스, 2009; 세계일보, 2009).

둘째,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이용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여학생의 경우 방학기간동안에는 가족 지지가 낮을수록, 친구 지지가 낮을수록 더 장시간의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되어있었고, 학기 중에는 친구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유능감 정도가 낮을수록, 분노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할수록 더 장시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방학기간동안에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장시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고, 학기 중에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 정도가 낮을수록, 분노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더 장시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방학기간동안에는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만이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되다가 학기 중에는 가족 지지가 중요하지 않아지면서 반면 친구지지에 더해서 사회적 유능감 정도와 분노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모두가 다 관련이 되었다. 방학의 경우 가장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 출처 두 곳만이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이 되었지만, 학기 중의 경우 학교생활 자체와 관련된 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와 달리 남학생의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해서 주요한 위험 요인은 우울이었다. 방학 중에는 우울만이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이 되었고 학기 중이 되면 우울에 더해서 여학생과 비슷하게 사회적 유능감, 분노조절 능력이 모두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이는 남학생일수록, 우울감이 강할수록, 게임 중독을 더 보였던 윤수연과 김은정(200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여학생은 친구지지가, 남학생은 우울 정도가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학기 중이 되

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친구지지와 우울 각각에 더해서 사회적 유능감과 분노조절 능력이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또래 관계나 가족 응집성 강화 프로그램이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달리 남학생은 개인적인 취약성을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의 심리적 어려움이 곧바로 즉흥적인 인터넷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자신의 분노감정에 대한 적절한 해소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특정 인터넷 영역에 대한 접속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여학생의 경우 낮은 가족 지지 정도는 채팅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높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가족 지지는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이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가족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메신저 사용과 관련되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구지지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채팅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게임사용과 관련이 되어있었고,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음란물 이용과 관련되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커뮤니티 이용과 관련되었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높은 정도의 자기효능감과 커뮤니티 이용이 관련이 되어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높은 자기효능감에 더해서 낮은 가족 지지 정도가 커뮤니티 이용과 관련이 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높은 자기효능감에 더해서 높은 우울 정도가 커뮤니티 이용과 관련이 되었다. 역시 여학생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남학생에게는 개인적인 우울이 인터넷 이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 구성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 이용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전혀 없었고, 여학생들은 친구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낮을수록, 분노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언니가 없을수록, 더 장시간의 학기 중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되었고, 친구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언니가 없을수록, 남동생이 없을수록, 방학기간 동안의 일일 인터넷 이용량이 많았다. 이런 결과는, 남학생들은 인터넷 접속 이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과 인터넷 이용 시간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다기 보다는 인터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 이용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해진다는 첫 번째 논의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의 경우는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 및 가족 구성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량과의 관계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량이 개인내적인 보호/위험 요인 및 사회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넷째, 가족 구성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인터넷 영역의 이용과 관련성을 분석한 경우, 여학생은 채팅과 게임의 이용은 낮은 가족 지지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메신저 사용은 낮은 가족 지지, 높은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었고, 커뮤니티 이용은 높은 자기효능감, 낮은 가족지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정보 검색의 이용은 높은 친구 지지와 관련되어 있었고, 음란물의 이용은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되어 있었고, 집안일 목적의 인터넷 이용은 높은 자기

효능감, 높은 우울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가족 구성과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에 고려하자 모든 영역에 대해 가족 구성적 특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커뮤니티 이용이 높은 자기효능감 및 낮은 가족지지와 관련되어 있는 점은 박유진과 김재휘(2005)가 연구를 통해 언급했듯이, 인터넷 공간상의 사회적 지지가 오프라인 공간상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점과 관련될 수 있다. 여학생이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가족 구성을 동시에 특정 영역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지을 때 모든 영역에 대해 가족 구성적 특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여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영역 특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용량과 관련될 때는 가족 구성적 특성이 유의한 역할을 하다가 이용 영역과 관련될 때는 가족 구성적 특성이 유의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여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특정한 콘텐츠에 대한 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경험들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 구성 및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특정 인터넷 영역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여학생의 경우에 비해 남학생은 접속하는 콘텐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했던 만큼 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남학생의 인터넷 이용 행동에 대해서만 초점을 둔 모형을 이용해서 남학생의 인터넷 이용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추후 연구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주요 접속 영역이 게임이었고(문성원, 2009), 이번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음란물 이용과 관련해서 가족 변인과 개인적인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의 역할이 다양한 관련

성을 보인 만큼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 변인과 개인적인 심리적 보호/위험 요인간의 관련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음란물 접속 행동이 많은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련성을 통해 설명된다는 것은 음란물 접속에 대한 현행의 생각이나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은 세분화되고 다양한 관계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음란물 접속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조손가정에 속해있는지의 여부나 외동아이 여부, 부모의 결혼 상태는 일일 인터넷 이용량과 무관하였다. 한편,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할 수록 병리적 증상도 더불어 증가했던 이전 연구를 고려할 때(문성원, 2009), 외형적인 가족 결손이 인터넷 이용량과 무관했다는 것은 외형적인 가족 결손은 병리적인 증상과도 무관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 형태의 가족 구성이 아니었던 만큼, 전체 응답자중 조손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이나 부모의 별거나 이혼, 재혼 등을 겪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비교 집단 간의 변량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손 가정의 아동들이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인 이정기와 최명선(2007)의 연구와 비교할 때,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손가정을 보다 다양화된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접근해야 하는데 충분한 표본이 얻어지지 못한 탓에 이러한 결과가 얻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부모의 제지 빈도와 인터넷 이용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학기 중과 방학기간 모두 ‘가끔씩’ 부모의 제지를 받는 여학생은 ‘제지받지 않는’ 여학생보다 인터넷 이용량이 많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는 부모의 제지 빈도와 인터넷 이용량이 무관하였으나 방학 중에는 ‘가끔씩’ 부모의 제지를 받는 남학생이 ‘제지받지 않는’ 남학생보다 인터넷 이용량이 많았다. 이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는 그저 반응적인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부모의 제지행동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행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기 보다는, 과도한 사용을 발견한 후 즉흥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하게 되는 시점은 매우 이르지만, 인터넷 이용 교육은 거의 시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야만 겨우 접하게 될 수 있다. 가령,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실(www.nia.or.kr)을 보면 유아 대상의 평가 척도도 마련되어 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이미 역기능적인 인터넷 이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이다. 이점은 한국청소년상담원(www.kyci.or.kr)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의 역기능적인 행동을 발전시킨 후에는 원상대로 치유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이다.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보다 어린 나이부터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며, 일반

인들 또한 그러한 예방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인터넷 이용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이나 심리적인 보호/위험 요인과 인터넷 사용량 및 특정 인터넷 콘텐츠 이용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매우 달랐던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치료적 개입이나 예방은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주요 결과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정에 속해있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재혼 등을 겪은 가정에 속해있다는 사실, 외동아이라는 사실 등 가족의 외형적인 결손이 곧바로 인터넷 이용량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가족 구성의 외형적 결손 자체가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위험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개입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외형적인 결손 보다는 해당 결손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학생의 인터넷 사용량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성이 없지만 여학생의 인터넷 사용량은 언니나 남동생이 한집에서 살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성을 가진 점은, 여학생에게 있어서 인터넷 은 부족한 또래 지지에 대한 대체 자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학생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이 되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고 있는가하는 점이 인

터넷 이용과 관련된다.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확립 욕구가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강하다(윤혜미, 남영옥, 2007).

넷째, 여학생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호/위험요인이나 가족 구성이 전체 사용량과 더 많이 관련이 되었고, 남학생의 경우는 보호/위험 요인이나 가족 구성이 특정 인터넷 영역의 사용과는 관련이 되어있었던 만큼, 여학생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예방적 개입에서는 시간 관리를 반드시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남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접속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비중 있게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이용 시간 관리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지만(이형초, 2006) 가령 이현자(2004)의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터넷 중독 예방은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란물 몰입 증상(문성원, 2009)은 접속 시간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남학생들에게는 게임이나 음란물등 영역 특정적 인터넷 이용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여학생의 일일 인터넷 이용량은 여학생이 처해있는 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방학기간에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방학기간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변인이 더욱 중요하지만 학기 중에는 분노조절과 같은 학교생활에서의 주요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비단 여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에 대한 주요 접속 동기로 ‘심심해서’를 꼽은 점과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시점에서 자신에게 심리적

으로 가장 관건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개 인터넷 접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생활의 주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인터넷 접속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여학생들의 이러한 인터넷 이용 행동 자체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개입시 여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이용 행동의 기제 자체를 본인들에게 설명해주고 대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손하고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적 자산과도 관련이 되며 이 또한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모르는 타인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판단으로 관련되어 있었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 인터넷상의 낯선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와는 무관하였다. 여학생에게는 인터넷이 매우 비중있는 사회적 지지원의 역할을 하지만, 남학생들에게 인터넷은 이미 아는 관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강점을 쏟아내는데 더 기여한다.

일곱째, 통상적으로는 낮은 문제해결 능력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됨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으나(박경애 등, 2009) 본 연구의 일부 결과에서는 인터넷 이용 행동과 높은 문제해결 능력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손안의 pc’라 불리며 최근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폰 열풍(2008)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인터넷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살아

가는 것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손바닥 안에 인터넷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인터넷의 이용을 병리적 증상으로만 해석하고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양쪽 방향 모두를 다루는 일이다. 그런 만큼 남학생들의 주된 접속 영역인 게임에 대해서도 한쪽에는 게임중독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흥미요소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교육 및 치료를 다루려는 노력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등(Coyle 등, 2005; Funbrain, 2009; Negroponte, 2008), 상반되는 두 개의 입장이 각자의 입장에서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장근영(2005)에 따르면, 리니지 게이머 중에서도 공동체 지향적 게이머들은 반사회적 성향, 성연령 차별, 게임지상 주의가 모두 낮으면서도 사회적 지향성은 높았다. 본 연구에서, 게임을 이용한다고 답한 남자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게임에 주로 접속해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지만,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행동과 긍정적인 심리적 자산과의 관련성이 나타난 점은 후속 연구를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도, 메신저 이용과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이 또한 여학생이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간단히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서 필요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인터넷은 충분히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예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여러 함의를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나,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3과 2004년에 수집된 것인 만큼 가

장 최근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일반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형태의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아니었던 만큼 특정군에 대한 결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 본 연구의 자료는 횡단적으로 얻어진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횡단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개인적인 심리적 자원이나 가족적 자원이 각기 다르게 인터넷 이용 행동과 관련을 갖고 있는 점을 규명해낸 점은 향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서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변인들을 이용하여 원인 변인과 이용행동 및 증상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힌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선주,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박숙희 (2004). 중,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26.
- 권창오, 김길모, 조성환, 김성식 (2009). 화상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중독 치료 프로그램

- 개발.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3-33.
- 김교현, 최훈석 (2008). 인터넷 게임중독: 자기 조절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551-569.
- 김은정 (2005). 폭력적 컴퓨터 게임과 공격적 비행, 인터넷 비행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4(2), 359-377.
- 김재엽, 이지혜, 이효정, (2009).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현실지각을 매개로 하여 형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 김정은 (2008). 초등학교 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19, 9-44.
- 김정환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 21-33.
- 김현수 (2005).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때문에 너무 아파요. 국민출판사.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 분석: 인터넷 중독 증세와 음란행위를 중심으로, 제37회 청소년 문제연구 세미나 자료집, 19-6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노컷뉴스 (2009).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소녀 성폭행 사십대 영장.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41659>
- 문성원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에 있어서의 성차 그리고 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47-65.
-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척도(MSPIUA)의 개발 및 타당화: 1부-증상척도(MSPIUA-S). 청소년 상담 연구, 12(2),
-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5).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MSPIUA)의 개발 및 타당화: 2부-원인척도(MPIUA-C). 청소년 상담 연구, 13(1).
- 미디어다음 (2009). 한국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 1위. http://media.daum.net/digital/all/view.html?cateid=1008&newsid=20091001184504914&p=yonhap&RIGHT_COMM=R10
-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가족과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4(1), 41-51.
- 박부진 (2002). 정보사회의 가족문화. 여성가족 생활연구, 6, 47-69.
-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13(2), 3-14.
- 박유진, 김재휘 (2005).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티 몰입과 동일시 및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25.
- 박중규, 배성만, 김승연 (2008). 게시발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08-609.
- 방희정, 조아미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 복지저널 (2009). 노인인터넷 방송국 국내최초 개국. <http://www.bokji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
- 서승연, 이영호 (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91-405.
- 성한기, 안경옥 (2005).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

- 독 수준에 따른 친구 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475-488.
- 세계일보 (2009). 자살사이트 느는데 단속은 사후 약방문.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101002191&subctg1=&subctg2=>
- 세계일보 (2009). 여중생 성폭행·절도 일삼은 '무서운 10대' 13명 검거.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15002237&subctg1=&subctg2=>
- 신수정, 장윤옥 (2007).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31-46.
- 신영주, 최정운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의 관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1-122.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 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함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연합뉴스 (2009). 여중생 상습 성폭행 구속.
- 윤수연, 김은정 (2005). 포스터발표: 인터넷 게임중독 및 게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게임특성, 게임 이용동기,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0-421.
-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93-108.
- 이성식, 전신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유형별 설명요인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4), 151-171.
- 이정이, 최명선 (2007). 조손가정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동 행동문제.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0(1), 63-72.
- 이해경. (2007).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 경험에 있어서의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2), 165-190.
- 이현자 (2004).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시간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5(10), 63-77.
- 이현주 (2006). 초등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하루 인터넷 게임 시간 및 인터넷 게임중독. 교육방법연구, 18(2), 119-137.
- 이형초 (2006). 컴퓨터 사용시간 통제방법이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 장근영, 김영아, 김유진, 문수종, 오경자 (2005). 중고등학생들의 컴퓨터게임 이용패턴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장근영, (2005). 온라인 공간과 온라인 게임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인간심리. 정보와사회, 8, 1-16. http://74.125.153.132/search?q=cache:62tQi6oVPPQJ:www.infoso.org/pds/01/01_%EC%9E%A5%EA%B7%BC%EC%98%81.pdf+%EC%9E%A5%EA%B7%BC%EC%98%81+2005+%EC%9D%B8%ED%84%B0%EB%84%B7%EA%B2%8C%EC%9E%84&cd=1&hl=ko&ct=clnk&gl=kr
- 장재홍, 신호정 (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651-672.
- 정민자 (2003). 특별기고: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육성지원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

-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입법 방향과 내용. *대한가정학회지*.
- 조영란, 이화자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모형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3), 541-551.
- 중앙일보 (2002). 사이버 문화 대책 내용. http://itview.joins.com/article/itview/article.asp?total_id=974043
- 진창현, 정의철 (2009). 온라인 게임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적 성향 차이 및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543-576.
- 한겨레신문 (2008). 소비자에게 손짓하는 손안의 pc.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328133.html>
- 한국기자협회 (2006). (188회-지역기획보도신문통신) 가정의 달 기획. http://www.journalist.or.kr/bbs/list.html?table=bbs_7&idxno=917&page=14&total=351&sc_area=&sc_word=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7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발표. <http://isis.nida.or.kr/board/index.jsp?pageId=060200&bbsId=3&itemId=773&pageIndex=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8년 한국인터넷백서. <http://isis.nida.or.kr/ebook/2008/ebook.jsp>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8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http://isis.nida.or.kr/board/index.jsp?pageId=040100&bbsId=7&itemId=723>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가정방문상담 이용안내. <http://www.iapc.or.kr/cns/cns-401.asp>
- APA.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Coyle, D. Matthews, M. Sharry, J., Nisbet, A. & Doherty, G. (2005). Personal Investigator: a therapeutic 3D game for adolescent psychotherapy. *Interactive Technology and Smart Education*, 2(2), 73-88.
- Eijnden, R. J. J. M. v., Meerkerk, G.-J., Vermulst, A. A., Spijkerman, R. & Engels, R. C. M. E. (2008). Online communication, compulsive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655-665.
- Funbrain. (2009). Funbrain. <http://www.funbrain.com>
- Grable, J. E. & Roszkowski, M. J.(2007). Self-assessments of risk tolerance by women and men. *Psychological Reports. Vol 100*(3), 795-802.
- Iftene, F., Napoca, C. & Roberts, N. (2004). Internet use in adolescents: hobby or avoidanc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9(11), 789-790.
- Jackson, L. A., Eye, A. V., Biocca, F. A., Barbatsis, G., Fitzgerald, H. E. & Zhao, Y. (2003). Personality, cognitive sty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use.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2(2), 79-90.
- Jackson, L. A., Eye, A. V., Biocca, F. A., Barbatsis, G., Zhao, Y. & Fitzgerald, H. E. (2006). Does Home Internet us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low-incom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429-435.
- Ko, C-H., Yen, J-Y., Yen, C-F., Chen, C-S. & Wang, S-Y. (2008).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belief of frustration intolerance: The gender difference. *CyberPsychology & Behavior*. 11(3), Jun 2008, 273-278.

- Negroponte, N. (2008). One laptop per children. http://www.ted.com/talks/nicholas_negroponte_on_one_laptop_per_child.html
- Steinhauer, J. (2008). Woman who posed as boy testifies in case that ended in suicide of 13-year-old.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08/11/21/us/21myspace.html?_r=1
- Stroope, B. E. (2008). The impertinent Internet: Gendered digital inequalities among tee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9(4-A),2008, 1565.
- Turkle, Sherry,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Simon and Schuster, New York.
- Whitlock, J., Powers, J. L. & Eckenrode, J. (2006). The virtual cutting edge: the Internet and adolescent self-injury.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407-417.
- Xiumin, Li (200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 of Internet content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China)*. 27(3), 559-562.
- 1 차원고접수 : 2009. 11. 16.
심사통과접수 : 2009. 12. 10.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7.

The gender based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protective/risk factors and family factors to Internet use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d a gender-based differential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protective/risk factors, family factors, and adolescent Internet use. The daily login duration, main login area, the presence of specific family members, and the level of protective/risk factors of 657 adolescents were assessed. The multiple regressions of protective/risk factors and family factors to login duration and the logistic regression of protective/risk factors and family factors to login content were studi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irls' Internet login dura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perceived peer support, social competence, anger control, and the existence of elder sisters in the semester. The girls' Internet login duration vacations was negatively related to peer support, family support, and the existence of elder sisters and younger brothers. The results for the boys did not display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protective/risk factors, family factors, and Internet login duration for both periods: semesters and vacations.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indicated that the girls' login to specific websites was not related to any family factors, but their chatting and game use were related to low family support, their messenger use was related to the low family support and high problem-solving ability, and their web community use was related to high self-efficacy and low family support. The results indicated complicated results for the bots'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ve/risk factors, family factors, and login content. The differential meaning and the role of Internet use based on gender and the importance of a gender-based approach in th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Internet use were discussed.

Key words : family resource, protective/risk factors, daily Internet use, login contents, gender difference